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ik@ownnewengland.com  
ClaraPai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한인 최초의 주정부 장관직에 오른 진아 매사추세츠 공공안전 · 보안청 진아 권 장관. 사진은 지난 10월 개천절 행사에 참석한 진아 권 장관

## 한인 2세 진아 권, 매사추세츠 공공안전 · 보안청 장관에 임명

한국계 최초의 매사추세츠주 장관, 한인으로는 최고위직 주 경찰 개혁 및 스트리트테이크오버 사태 검거에 큰 역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2일 한인 2세인 진아 K. 권(Gina K. Kwon) 차관을 공공안전 · 보안청(EOPSS, 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으로 최초의 매사추세츠주 한

인 장관이자 MA 주 최고위직에 오른 한인이 됐다. 권 장관은 2023년 2월부터 법집행 차관으로 재임하며 주경찰 개혁과 주요 공공안전 정책을 총괄해 왔으며, 검사 경력과 법집행 경험이 모두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임명에는

〈전체 기사 읽기〉

런스 리디 장관의 퇴임에 따른 후속 인선이다

힐리 주지사는 권 장관을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검사이자 법집행 리더” 라고 평가하며 “주 전역의 법집행 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공공안전을 강화해 온 경험이 충분하다” 고 말했다. 주지사는 또한 과도기 동안 장관 대행을 맡아 온 수전 테리 부장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10면으로 계속

## 보스톤 주거비 최고치 경신... 중산층도 집사기 힘들다

보스톤재단 보고서 “임대 · 주택 가격 악화... 공급 절벽 다가온다”  
보스톤 36개 도시 · 타운 집값 100만 달러 넘어... 임대료도 전국 최고권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주거비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이나 LA와 견주는 높은 임대료, 다수 지역에서 100만 달러를 넘어선 주택 가격은 이미 중산층마저도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보스톤재단(Boston Foundation)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 리포트 카드(Greater Boston Housing Report Card)’ 에 따르면 보스톤의 이 같은 주거비 상승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란 점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주택공급이 늘어났지만 최근 주택 허가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공급절벽이 예상된다. 렌트 시장도 미 >>12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지에 아플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학부모가 한국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말하기 · 읽기 능력 향상"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25 학부모 공개수업 및 설문결과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박선영)가 '2025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을 개최하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차 공개수업은 11월 1일 병아리반부터 세종과정과 성인반까지 전 과정에서 이뤄졌고, 2차는 11월 8일 작문 · 음악 · 문화교육 부문 학급에서 진행됐다.

설문 결과, 학부모들이 2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 이 58.8%로 1순위, '읽기 능력 향상' 이 56.9%로 2순위로 나타났다. 말하기 · 읽기 중심의 기초 언어 능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어 '쓰기 · 듣기 능력 향상', '문화 · 역사 교육', '한국 전통 · 예절 교육' 이 뒤를 이었다.

수업 언어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사가 가능하면 한국어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 가 78.4%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한글을 주로, 영어로 보조 설명수단으로' 을 원하는 학부모도 19.6%로 상당수였다. 한국어 중심의 수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일부에게는 영어로 보조설명도 필요하다는 학부모 의견

### 〈전체 기사 읽기〉

이 반영된 것이다.

숙제에 대해서도 '주 1회 수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숙제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고,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주 꾸준한 숙제가 필요하다' 는 의견도 33.3%에 달했다.

학부모 도우미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8% 이상이 "도움 의사가 있다" 고 답해, 2세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지역 최대 규모의 한국학교로, 기초부터 성인반까지 총 47개 학급에서 한글 · 작문 · 문화 · 역사 · 미술 ·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11월 22일 토요일 뉴튼 소재 학교 강당에서 '개교 50주년 기념식' 을 개최하며, 2026학년도 입학기 등록은 12월 31일부터 시작된다. 등록 문의는 전화 508-523-5389,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으로 하면 되고, 관련 소식은 홈페이지 (www.ksne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에서 부터) 초급과정 백제반, 거북이반, 은도끼반

서울설령탕 겨울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세계 No.1 동삼보인삼

##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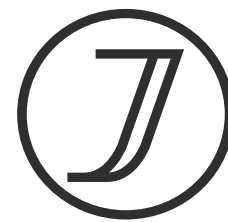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을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된 링크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반드시 한번은 들어야 할 미 부동산 취득전략 및 한미 세법 비교해설 세미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 세법 전문 회계사인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Brookline, MA)의 이명원 한국-미국 회계사(MW LEE, CPA P.C. 대표)가 양국의 세법을 준수하면서 절세를 원하는 고객 및 미국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예비 영주권자, 유학생,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그들의 자녀 및 부모, E-2, L-1, H-1B 비자 소지자 및 미국에 부동산 취득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세법 비교해설과 미국 부동산 취득전략에 대하여 11/15, 11/29, 12/6 & 12/13 (토) 오후 2에 각각 2회씩 서울 삼성동 소재 호연회계법인에서 진행되며, 해당 사전 예약을 완료한 13명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른 세미나와 달리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한국 또는 미국 한쪽에만 국한된 절세 방법이



나 잘못된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과 미국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명원 회계사는 한미 세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법 적용에 대한 상세한 비교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법 준수에 대한 불안감과, 세

금 보고가 이민 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 신청 및 자세한 일정과 교육비는 MW LEE, CPA P.C. 공식 홈페이지(www.mwleecpa.com) 확인 또는 askcpa@mwleecpa 로 문의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YLS)와 송년의밤 동시에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KACL, 회장 린다챔피언)가 2세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는 영리더십심포지움(YLS) 및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렉싱턴 엘크스(ELKS)클럽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 사회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문어워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5시부터 시작되는 올해 YLS는 김재휘 총영사의 기조연설 이후 범주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동시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험과 대처방법 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연사들은 매리언 라이언 미술 섹스지검 지검장, 샘김 변호사이자 목사 그리고 에스더 김 법전 공 학생 등으로부터 범주계에서 경력을 바탕으로 불링, 헤이징 그리고 음주 등의 문제를 다룬다. 심리상담가인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 및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로부터 이와 관련된 우울증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된다.

YLS 후 7시부터는 작년에 이

어 두번째 문어워드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 시간에 저녁식사가 함께 진행된다. 시민협회는 올해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 부문은 30세 이하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떠오르는 리더, 올해의 커뮤니티 단체, 올해의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 10년을 이끈 자 자원봉사자, 올해의 동반자(Ally), 그리고 올해의 예술가 등 총 여섯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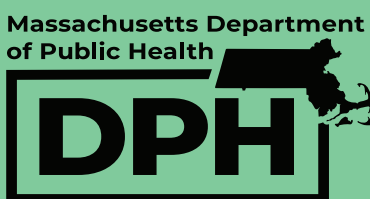
밤 8시부터는 11시까지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공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댄스파티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DJ 피치(Peach)가 흥겨운 음악을 담당한다. DJ 피치는 지난해 MFA에서 열린 에일리 공연 당시 DJ로서 큰 활약을 한 바 있다. 이날 송년 파티에서는 경품추첨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입장료는 \$55이다.

티켓은 다음의 링크에서 구입 가능하다.

티켓 : <https://www.eventbrite.com/e/holiday-party-with-dj-peach-tickets-1892667061129>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14th - NOV. 20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SALMON RICE BOWL

A wave of rich, traditional flavor straight to your table. Elevate your meals with H Mart's flavor-packed essentials. 달콤 짭조름한 신종 밥도둑, 초간단 연어장 덮밥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Chinese Crown Daisy (Tong Ho) 중국 썩갓 LB <b>\$1.99</b>	Pomegranate 석류 LB <b>\$2.99</b>	Yu Choy 하루나 LB <b>\$1.49</b>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b>\$1.49</b>	Green Onion 파 BUN <b>3\$1.99 FOR</b>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b>\$2.99</b>	Perilla Leaves 깻잎 BUN <b>3\$2.99 FOR</b>
Cherimoya 체리모야 LB <b>\$6.49</b>	Small Bok Choy Tip 스펀 박초이 팁 LB <b>\$1.79</b>	Fuyu Persimmon 단감 BOX <b>\$17.99</b>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b>\$2.99</b>	Organic Fuyu Persimmon 유기농 단감 3 LB PKG <b>\$9.99</b>	Napa Cabbage 배추 BOX <b>\$9.99</b>	California/Florida Pomelo 캘리포니아산/플로리다산 포멜로 LB <b>\$1.99</b>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b>\$3.99</b>	Fresh Beef Heel Meat 생 소 사태 LB <b>\$9.99</b>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b>\$7.99</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7.99</b>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2.99</b>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b>\$6.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LB <b>\$7.99</b>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b>\$5.99</b>	Frozen Loligo Squid 한치 20-25 CM/LB <b>\$5.99</b>
Frozen Croaker 왕조기 500-1000'S/LB <b>\$2.99</b>	TONGTONGBAY Frozen Tilapia Fillet 통통배 틸라피아 필렛 LB <b>\$3.99</b>

### SMART CARD MEMBER ONLY

OTOKI Jin Ramen Cup Noodle Soup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 MILD 2.29 OZ X 6 EA/PKG <b>\$5.99</b>	OTOKI Jin Ramen Cup Noodle Soup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 SPICY 2.29 OZ X 6 EA/PKG <b>\$5.99</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CJ Bibigo Mandu Dumpling CJ 비비고 왕교자 PORK & VEGETABLE 2 LB <b>\$5.99</b>

SGFOOD Green Tea Seasoned Sliced Laver 성경 지도표 녹차곰창돌김 2.25 OZ (16 EA/PKG) <b>\$5.99</b>	PK KYUNGBOK KUNG KOREAN BBQ Galbi-tang Beef Short Rib Soup 피케이 경복곰갈비탕 19.4 OZ <b>\$8.99</b>	PK Mi Yeok Guk Seaweed Soup with Beef 피케이 소고기 미역국 15.9 OZ <b>\$4.99</b>	MARUCHAN Mama Yaki-soba Stir Fry Noodles with Seasoning Sauce Base 마루찬 야끼소바 16.93 OZ <b>2\$5</b>	PULMUONE Red Bean Bungeoppang 풀무원 단팥 미니붕어빵 12.7 OZ <b>\$6.99</b>
FOODCELL Wide Vermicelli Noodles 푸드셀 납작당면 1 LB <b>\$3.99</b>	HAIO Pancake Mix 해오름 부침가루 2 LB <b>2\$5</b>	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37 OZ X 12 EA/PKG <b>\$3.99</b>	ORION Marione Boy 오리온 고래밥 짜장라면맛 10 EA/PKG <b>\$3.99</b>	OHSUNG Yes! Chips 오성 예스칩스 SPICY ROASTED CORN CRISPS 5.11 OZ <b>\$1.99</b>
HAIOREUM Aloe Vera Drink 해오름 알로에 주스 ORIGINAL 50.7 FL OZ <b>\$1.99</b>	PALDO Shikhye Rice Punch 팔도 비락식혜 8.05 FL OZ X 6 CANS/PKG <b>\$5.99</b>	Nylon Slotted Turner 나일론 홈이 있는 뒤집개 <del>\$3.49</del> <b>\$2.79</b> EA	SURLASANG Fry Pan 수라상 마블 후라이팬 30 CM <del>\$33.99</del> 32 CM <del>\$36.99</del> 16 OZ BLUE/RED <del>\$47.99</del> <b>\$21.99</b> EA	ZOIRUSHI Stainless Steel Mug 조지루시 스테인레스 머그 16 OZ BLUE/RED <del>\$47.99</del> <b>\$22.99</b> EA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 보석처럼 빛난 채지영, 한서혜, 이상민 올시즌 첫 보스턴발레 무대 장식

## 명장 조지 발란신의 현대적 고전발레 <주얼스>, 긴 공백 끝에 다시 빛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보스톤 발레가 11월 6일부터 조지 발란신의 '주얼스' 를 올 시즌 첫 작품으로 공연 중이다. 6일 오프닝 무대에서는 채지영, 한서혜 그리고 이상민씨 등 한국 무용수가 각 무대의 주연을 맡아 발군의 활약을 벌였다.

조지 발란신은 1967년 뉴욕시티발레단을 위해 '주얼스' 를 창작했다.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로 구성된 이 세 편의 삼부작 발레는 20세기 무용의 '보석 왕관' 이라 불릴 정도로 현대적 고전 발레의 전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에메랄드는 우아하고 럭셔리한 19세기의 파리를 묘사하며 가브리엘 포레의 음악이 사용됐다. 발란신 지젤 같은 낭만적인 발레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으로 수석무용수 한서혜씨가 폴 크레이그와 주연을 맡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루비는 발란신이 뉴욕시티발레단을 위해 창작한 현대 고전발레로 미국적인 발레 그 자체다. 빨간색의 '루비' 는 재즈적인 감각과 대담한 안무를 통해 20세기 미국 무용수 특

유의 속도, 유연성, 그리고 운동성을 날카롭고 각진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음악에 맞춰 재치 있고 장난기 넘치는 이 작품을 채지영과 제프리 사이로가 주연을 맡아 완벽하게 표현했다.

'주얼스' 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이아몬드' 는 발란신의 뿌리에 대한 오마주다. 이 작품은 제정 러시아 고전주의의 기술적 정교함과 웅장함을 반영하며, 차이코스키의 교향곡 3번에 맞춰 구성되었다. 백조의 호수가 연상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시즌 백조의 호수 주연으로 찬사를 받았던 빅토리아 캠피노바가 다시한번 이상민과 호흡을 맞췄으며 훌륭한 대미를 장식했다.

한동안의 휴식이 후 복귀해 최근 다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한서혜씨는 폴 크레이그와 호흡을 맞추며 에메랄드처럼 빛났다.

보스톤글로브의 발레 전문 제프리 갠츠 기사는 "한서혜는 장난스럽고 변화무쌍한 연기로 순수한 폴 크레이그와 완벽한 호흡을 보였다. 섬세한 음악에 맞춰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모했다" 고 평했다.

### <전체 기사 읽기>

루비의 주연으로 등장한 채지영씨는 관객들의 환호를 한몸에 받는 발레 동작을 선보였다. 제프리 시리오와 호흡을 맞춘 이들은 뛰어난 기술로 이 재즈풍의 빠른 템포의 루비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제프리 갠츠 기사는 "채지영은 가볍게 다리를 머리까지 들어올리며 놀라운 탄력과 자유로운 다리를 선보였고, 연속회전 뒤 링크와 함께 퇴장했다" 며 칭찬했다.

그는 특히 보스톤 발레가 '주얼스' 를 2009년과 2014년에만 공연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이번 시티즌 오페라하우스 공연, 특히 채지영과 제프리 시리오의 '루비' 듀엣은 다시 1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만들 만큼 인상적이었다." 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이아몬드의 남성 주연으로 등장한 이상민씨도 빅토리아 캠피노바와 호흡을 맞춰 지난 백조의 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숨죽이는 몰입을 선사했다.

갠츠 기사는 "빅토리아 캠피노바와 이상민은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뒤이은 '스케르초' 에서 이씨는 정교한 회전 기술을 선보였고, '폴로네즈' 의 피날레에서



는 캠피노바가 경쾌하게 리듬을 주도했다. 그보다 완벽한 무대 피날레는 상상하기 어렵다." 고 평했다. 보스톤발레의 '주얼스' 는 11월 16일까지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Citizens Opera House)에서 공연한다. 티켓은 \$36부터 시작하며 bostonballet.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는 캠피노바가 경쾌하게 리듬을 주도했다. 그보다 완벽한 무대 피날레는 상상하기 어렵다." 고 평했다. 보스톤발레의 '주얼스' 는 11월 16일까지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Citizens Opera House)에서 공연한다. 티켓은 \$36부터 시작하며 bostonballet.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급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https://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elee@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ckw@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shoa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슨</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shind@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sh@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폴리진</b> 978.454.2043 pjin@bostonpremierrealty.com	 <b>니키 파크</b>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b>피터 유</b>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b>지나 헤</b> 978.866.3248 jinahe@bostonpremierrealty.com	 <b>여현주</b> 401.535.3387 yehyunju@bostonpremierrealty.com
 <b>사라 유</b> 617.638.5787 saryoo@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김</b>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b>강수진</b> 617.638.6973 kangsojin@bostonpremierrealty.com	 <b>마세웅</b> 213.563.0997 ma.seung@bostonpremierrealty.com	 <b>미키 헤</b> 413.507.1402 mikihe@bostonpremierrealty.com	 <b>선재해</b> 617.913.3588 sunjaeh@bostonpremierrealty.com
 <b>최준원</b> 617.6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b>이영순</b> 781.800.3412 ayoung@bostonpremierrealty.com	 <b>곽복숙</b>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b>지현경</b> 617.510.1182 jihyeon@bostonpremierrealty.com	 <b>이곤</b> 617.643.8723 egon@bostonpremierrealty.com	 <b>헤온기</b> 604.611.0182 heong@bostonpremierrealty.com
 <b>Tommy Woolfolk</b> 617.274.5610 to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9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Mian Yu</b>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8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ang</b> 248.448.0117 luja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638.960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23.1038 rebeccaphu@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mma</b>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a</b> 6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38.828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b>반문희 박</b> 291.448.8589 hwanmoon@bostonpremierrealty.com	 <b>재이그 김</b> 781.596.0409 reagr@bostonpremierrealty.com	 <b>이성진</b> 857.280.0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b>Nini Bolanger</b>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 한때 첨단기술의 상징이던 룸바의 아이로봇, 파산위기에 봉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봇청소기 ‘룸바(Roomba)’로 유명한 아이로봇(iRobot)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은 매사추세츠 베드포드에 본사를 둔 아이로봇이 11월 6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전략적 대안 검토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노력이 파산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아이로봇은 지난 10월 잠재적 인수자가 협상에서 철회한 뒤 새로운 매각 상대를 찾고 있으나, 재무 여건이 악화돼 사실상 파산 보호 신청(챕터 11)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로봇 대외 커뮤니케이션 담당 미셸 시날(Michèle Szyal)은 금요일 이메일 성명에서 “챕터 11 절

차의 목적은 직원, 고객, 파트너를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회사는 여전히 사업 강화를 위한 모든 전략적 대안과 재무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로봇은 최근 주식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주당 가격을 두고 매각 협상이 진행됐다고도 덧붙였다. 11월 13일 오후 아이로봇 주가는 2달러로, 시가총액은 6,400만 달러 수준이다.

한때 아마존은 2022년 주당 61달러, 총 17억 달러에 아이로봇 인수를 제안했으나, 반독점 규제 문제와 가격 인하(14억4,000만 달러) 이후 2024년에 거래를 철회했다.

아이로봇의 3분기 매출은 1억4,5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9,340만 달러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33% 하락했다. 회사는 “현재 주

〈전체 기사 읽기〉  
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아이로봇은 현재 주요 계약 제조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칼라일그룹(The Carlyle Group)과 추가 자금 지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칼라일그룹은 2023년 아이로봇에 2억 달러를 대출했으며, 올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계약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의무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12월 1일까지 채무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이로봇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 보고서는 “만약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아이로봇은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매사추세츠 30만 명 이상, 오바마케어 보험료 부담 급증 우려

셋다운 합의로 ‘건강보험 비용’ 보조금 연장 전망 불투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정부 셋다운이 종료됐지만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비용이 두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민 30만 명 이상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경우 현재의 보험료에서 2배 이상이 급등하게 될 전망이다. 카이저 재단은 각 가정당 평균 580여 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 8명의 이탈로 셋다운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요구해오던 확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은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단지 12월 중순에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것만 합의했다.

확대 건강보험 보조금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보험료 부담

〈전체 기사 읽기〉  
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세금 크레딧이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수십 만명이 의존하고 있는 보조금이지만 12월 중순 공화당이 보조금 표결에서 찬성하지 않는 경우 이는 각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근 보스톤 근교에 거주하는 한인에 따르면 개인당 보험료가 월 120달러 정도였으나 내년 보험료의 경우 250달러 정도로 두배 이상 급등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헬스케어는 연방 세금 크레딧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1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관련된 실제 논의는 셋다운 종료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말을 앞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NOV. 13<sup>TH</sup> - NOV. 20<sup>TH</sup>, 2025



Black Bean Soymilk

베지밀 검은콩두유

6.4 FL OZ X 24 EA/SPECIAL GIFT BOX **LIMIT 2**

**\$13.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힐리 행정부, 공공안전 수장에 지나 권 임명 배경은?

## 주경찰 개혁 ·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대응 주도 주지사의 공공안전 현안 대응 강화 의지 반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12일 공공안전 · 보안청(EOPSS) 장관으로 진아 권을 임명한 것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공공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는 최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안전 · 경찰 개혁 ·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행정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지려는 의지다.

**공공안전 이슈가 핵심 현안으로**  
지난 1년 동안 매사추세츠에서는 도심 도로를 집단으로 점거, 주행하는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문제, 일부 지역의 총기 사건 증가, 주경찰 개혁, 이민 및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대응 부담 등이 누적됐다.

특히 최근들어 보스턴과 인근 도시들에서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잇따르며 주민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해 힐리 행정부는 이를 주요 공공안전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후 주경찰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집행 경험이 있으며 주경찰 개혁을 직접 이끌어 온 지나 권이 차관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주경찰 개혁’ 의 실무 책임자였던 권 전 차관**

주정부 아마로 발렌티나 대변인에 따르면 지나 권 장관은 2023년부터 법집행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제프리 노블 신인 주경찰청장의 영입,

내부 규율 개편, 그리고 교육을 이끄는 등 주경찰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

이는 힐리 행정부가 내세운 ‘경찰 신뢰 회복 · 공공안전 강화’ 전략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따라서 리디 장관의 퇴임 이후, 개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지나 권이 부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사회와 법집행 기관을 연결**  
힐리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열린 공공안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경찰 · 시장 · 지역사회 단체와 직접 소통한 과정에서도 권 장관은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주경찰은 불법 도심 주행 단속을 위한 인력 · 예산 배치를 확대했고, 실제로 여러 건의 합동작전으로 성과를 냈다. 이처럼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과 조정에 뛰어난 점이 장관 낙점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다음은 주정부 대변인과의 이메일 문답이다.

**·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대응, 주경찰 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신뢰 회복 등 현재 행정부의 공공안전 우선 과제가 권 장관 임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주정부 대변인= 권 장관은 매사추세츠 주경찰(MSP), 지방경찰 교육 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mmittee), 보조금 · 연구국(Office of Grants and Research)과 관련된 정책 · 프로그램 · 예산 전반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차관으로 재직하며 힐리 주지사

### 〈전체 기사 읽기〉

가주 전역에서 법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개최한 공공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라운드테이블은 공공안전 향상을 위한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는 주지사가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예방을 위해 주경찰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후 여러 차례 성공적인 작전이 진행된 바 있다.

힐리 주지사는 공공안전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주 전역의 지역사회와 협력할 줄 아는 리더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노블 주경찰청장 체제에서 진행 중인 개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권 장관의 리더십이 핵심이라고 행정부는 보고 있는가?**

주정부 대변인= 권 장관은 차관으로 재직하며 매사추세츠 주경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는 제프리 노블 청장의 임명도 포함된다.

힐리-드리스크롤 행정부는 공공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힐리 주지사는 권 장관이 MSP의 ‘운영 우수성 및 책임성’ 강화 노력, 지역사회 참여와 신뢰 구축,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최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최근 공공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드러난 ‘법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파트너 간 조정 강화 필요성’ 이 권 장관 승격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였는가?**

주정부 대변인= 권 장관의 임명은 그녀가 오랜 기간 공공안전 문제 해



결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해법을 마련해 온 성공적인 경력을 반영한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한인 2세 지나 권, 매사추세츠 공공 안전 · 보안청 장관에 임명

▶▶1면에 이어서

권 장관은 임명 소감에서 “힐리 주지사가 신뢰를 보내준 데 감사하며, 공공안전과 비상 대응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EOPSS 합류 이후 주경찰청의 조직 개혁을 지원했고, 올해 이어진 힐리 주지사의 공공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회의는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단속 강화를 위한 주경찰 지침으로 이어졌으며, 여러 건의 성공적 작전이 시행됐다.

EOPSS 이전에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서 형사국장을 맡아 중대 범죄 수사 · 기소를 총괄했다. 2015년 주 검찰총장 산하 사

이버 · 중대범죄부 검사로 시작해 2017년 부국장, 2019년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앞서 서퍽 ·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며 마약 · 갱 범죄 수사와 자산물수 업무를 맡았다.

권 장관은 매사추세츠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과거 주지사 직속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와 포렌식 과학 감독 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권 장관은 지난 10월 총영사관 주최 개천절 행사에 주요 연사로서 한인사회에 처음 참석했다. 워싱턴 DC 근교에서 자랐으며 보스턴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뉴잉글랜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보스톤 주거비 최고치 경신...중산층도 집사기 힘들다

▶▶1면에 이어서

국내에서 가장 낮은 공실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인 렌트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4년 기준 보스톤 지역의 렌트 공실률은 3퍼센트로, 뉴욕과 워싱턴DC보다도 낮았다. 2025년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이민정책으로 인한 유학생 감소로 일부 지역 공실률이 늘었지만,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보스톤의 렌트비는 팬데믹 초기 잠시 하락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기관별로 중간 렌트비는 월 2,400달러에서 3,500달러 사이로 다양하지만 미국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Zillow)는 보스톤을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렌트비 지역으로 꼽았다. 보스톤보다 임대료가 높은 곳은 샌디에이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뉴욕 네 곳뿐이다.

**주택허가 감소로 공급 절벽 예상**  
주택 공급은 조만간 '절벽'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그레이터 보스톤은 2021년과 2022년 팬데믹 이후 반짝 허가가 증가했다. 이때 승인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최근 완공되어 주택공급이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보스톤시는 2023년과 2024년에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신규 허가를 기록했고,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신규 주택

은 5,456호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44퍼센트 감소했다. 지금 공사 중인 물량이 끝나면 뒤를 이을 공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가장 나쁜 점은 건설이 늘었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급 감소는 향후 가격 상승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집을 사는 일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더 부담스러워졌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급등했고, 2021년 금리 상승 이후 거래가 얼어붙자 공급 부족이 겹치며 가격은 더 올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 폭이 컸다. 브락턴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2015년 이후 72퍼센트 상승했고, 로렌스는 두 배 이상 올랐다.

비싼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레이터 보스톤의 36개 도시·타운에서는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브루클라인, 웰슬리, 웨스턴 3개 타운은 중간가격이 200만 달러를 초과했다.

**주거비 부담 크게 악화**  
주택 비용과 렌트비 상승이 지속됐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악화된 것이 당연하다. 주택구입 진입 장벽도 크게 높아졌다. 2021년 가장 저렴한 주택 가격대의 중간 가격은 약 39만 9,554달러였고, 이를 감당(월 상환금이 소득의 30% 미만)하려면 연 소득 약 9만 8,000달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2025년 동일 가격대의 주택은 50만 5,319달러로 올랐고, 필요한 연 소득도 16만 2,224달러로 증가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보스톤재단 산하 보스톤인디케이터스(Boston Indicators) 루크 슈스터 최고책임자

로 증가했다. 불과 4년 사이 지역 주민 절반 가까이가 이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렌트시장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레이터 보스톤 렌트 가구의 절반은 월 소득 30퍼센트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6퍼센트는 이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이 비용 부담은 인종 간 격차도 크다. 흑인 렌트 거주자의 56퍼센트, 라티노의 52퍼센트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아시안의 경우 48퍼센트, 백인은 46퍼센트로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적었다.

**홈리스 여전히 문제**  
홈리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과 2024년에 홈리스

인구는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들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3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홈리스 증가세는 특히 흑인과 라티노 인구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신규 이주자 급증과 그에 따른 주 응급 쉼터 시스템의 과부하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 1월 기준 인구 1만 명당 홈리스 발생률은 흑인 36명, 라티노 105명, 백인 21명, 아시안은 4.9명이었다.

**MBTA 커뮤니티법**  
보고서는 MBTA 인접 지역의 다가구 주택 허용을 요구하는 'MBTA 커뮤니티법'을 향후 주택 공급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평가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공급 확대 시도였지만, 17개 대상 지역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게 이어졌다. 지역 성장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주택 옹호자들과 달리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개발이 지역 정체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타운에서는 실질적 공급 확대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을 충족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 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주정부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에 학교·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제공해 주민들의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힌 섀드아웃 협상 내막...슈머는 알고 있었다

### 중도 성향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와 결별해 공화당과 협상 나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정부 역사상 가장 긴 섀드아웃의 전환점은 민주당 중도성향의 의원들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동안 협상의 내막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섀드아웃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존 톤 공화당 원내대표와 협상했으며 이 내용을 적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했었다고 밝혔다.

WSJ는 이들 의원들은 상원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복도를 떠난 뒤, 이탈한 민주당 의원 몇 명과 무소속의원 한 명이 눈에 띄지 않게 존 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에서 협상을 지속했다고 보도했다.

섀드아웃이 한 달에 가까워지면서 연방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도 소진돼가고 있었다. 할로윈 이틀 전, 이 그룹은 정부를 재개할 생각으로 톤과 마주앉았다고 회동을 잘 아는 인사들은 전했다. 협상을 이끈 메인주의 무소속 상원의원 앤저스 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고 말했다.

이 회동은 여러 차례 열린 만남 중 하나였으며, 킹과 다른 중도파 즉 뉴햄프셔의 민주당 상원의원 진 사힌, 매기 하산 등이 요청한 자리였다. 두 명의 뉴햄프셔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두 전직 주지사 출신이다. 공화당 측 참석자는 톤과 노스다코타의 존 호벤 상원의원으로, 그 역시 전직 주지사이자 강력한 세출위원회 고위 위원이다.

슈머는 섀드아웃을 좀 더 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

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서서 더 나은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핵심 요구는 만료료 앞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을 다루는 것이었고, 슈머는 이를 협상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섀드아웃 내내 슈머는 협상의 중심에서 서지 않았고,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상하도록 허용했다.

킹, 사힌, 하산 등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은 톤과 공화당 세출위원들과의 논의를 정기적으로 슈머에게 업데이트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공화당 측에는 호벤 외에도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세출위원장), 앨라배마의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이 있었다.

이들은 슈머가 찬성표를 던지면 더 많은 민주당 의원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다. 슈머는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합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마련한 합의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보고 수정을 제안했다고 관련 상원의원과 보좌진들은 밝혔다. 그는 또한 이들이 어떤 내용에도 서명하기 전에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 이후까지, 그리고 11월 4일 선거 이후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슈머가 민주당 협상 파트너들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택했다. 킹은 슈머가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그를 우회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그도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에 의견을 냈다” 고 설명했다.

### 〈전체 기사 읽기〉

선거 당일, 사힌은 점심 회동에서 중도파의 계획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회의 내용을 잘 아는 인사들은 전했다. 이날은 버지니아와 뉴저지 등 여러 주의 선거가 마감되는 날이었다. 10명 이상이 합의안에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찬성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아침, 주 전역에서의 대수 소식이 확정된 뒤 오히려 더 결속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섀드아웃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 7일 금요일부터 항공기 지연이 시작됐고, 일부 유권자들은 수차례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연방 식품지원이나 난방 보조금이 끊겼다.

9일 일요일이 되자, 여덟 명의 민주당 의원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의안은 정부 운영 대부분을 1월 30일까지, 식품 지원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1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 협상 결과는 민주당 진보 진영과 당내 활동가들을 격분시켰다. 그들은 이 그룹이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슈머에게도 분노를 돌리고 있다. 슈머 비판자들은 당을 단일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그의 리더십 실패라고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만료되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협상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톤과의 협상에서 중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보장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고, 톤은 12월 중순까지 보조금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슈머 측 인사들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공화당조차 민주당이 이렇게 오래 버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킹은 지난 몇 주간 공화당과 협상하면서 트럼프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작동하지 않는 전략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핵심은 그거다.”

백악관은 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항공관제 인력 급여 지급이나 식품 지원을 단독 처리하는 표결 계획을 거부했고, 민주당의 면담 요청도 거절했으며 정부가 재개될 때까지의 관련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슈머는 금요일 마지막 제안을 내놴다. 공화당이 보조금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면 정부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공화당은 즉각 이를 거부했고, 중도파의 합의안은 주말 동안 탄력을 얻었다. 존 톤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 8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말을 했었고 이미 이들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슈머의 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크게 없었던 것이다.

9일, 슈머는 “의료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합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 제

한된 가운데, 공화당은 여덟 번째 표가 될 버지니아의 팀 케인 상원의원(D)을 필요로 했다. 브릿 상원의원은 케인, 백악관,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섀드아웃 기간 중 단행된 연방 해고 조치를 되돌리고 1월 말까지 향후 해고를 금지하는 문구를 합의안에 넣는 작업을 진행했다.

케인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상원은 일요일 밤 6대 40으로 핵심 절차 표결을 통과시켜 단 한 표도 남기지 않은 채 정부 재개 법안을 진전시켰다.

협상에 참가했던 진 사힌 의원은 많은 예산이 1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다시 섀드아웃을 촉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었기에 이번 협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3월에 공화당과 손잡고 섀드아웃을 막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던 슈머는 이번에는 섀드아웃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됐다. 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료비 문제가 민주당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월요일 연설에서 슈머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하느님에 대하여  
천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사추세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대학 졸업장으로도 안정된 삶 보장안돼...부모에 의존 주거, ·보육, 교육비 폭등과 소득 불평등 심화가 원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지적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12일 매사추세츠 중산층 붕괴 상황을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짚었다. 집값과 보육·교육비 등 기본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나머지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때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졸업장이 중산층의 보장으로 이어지던 시대는 거의 끝났다. 보스톤대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35세 알렉사 아래나는 대학원 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부모 집으로 들어가 살거나 임대료로 월소득의 절반을 지출해야 한다. 도체스터에 사는 음악교사 사샤 화이트 역시 12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두세 개의 일을 병행한다. 이들 모두 경제학 기준으로는 중산층 소득에 해당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안정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글로브가 보스톤재단 산하 보스톤인디케이터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보스톤 지역 가구의 절반가량이 중산층에 속했으나, 2023년에는 41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 중 많은 가구가 고소득층으로 이동했고, 상당수는 오히려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가구는 9만 가구에서 42만 가구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형적인 K자형 소득 양극화다.

중산층을 옥죄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거비 급등이 꼽힌다. 보스톤 인근 지역의 집값은 20여 년 사이 3배 이상 뛰었고, 렌트비도 140퍼센트 상승했다. 공립대학 학

〈전체 기사 읽기〉

위 취득비용은 1999년 이후 3배 가까이 올랐으며, 4세 아동 보육비는 연 1만 8,000달러, 영아 보육비는 연 2만 6,700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보육비를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소득 대비 7%)으로 보려면 연소득이 38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매사추세츠 가구 10퍼센트 미만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대 간 이동성의 하락도 중산층 축소와 맞물린다. 1940년생의 92퍼센트는 부모보다 높은 소득을 기록했지만, 1980년생은 그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젊은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조사도 있다.

매사추세츠 경제의 강점이었던 첨단기술·금융·생명과학 분야도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격근무 확산과 외부 지역으로의 업무 이전,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산층 일자리 기



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텍사스대 미셸 디커슨 교수는 “소비가 중심인 미국 경제에서 중산층이 사라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경고했다.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주거·교육·보육비 부담이 커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중산층의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생명과학·클린테크·AI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MBTA 커뮤니티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산업정책이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 본사는 매사추세츠에 두더라도 제조·생산 시설은 외부에 두면서 중산층을 지탱할 만한 ‘중급 기술 일자리’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스톤글로브는 전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2025 땡스기빙, 보스톤에서 만나다

플리머스 퍼레이드부터 홀리데이 마켓까지, 감사의 계절을 특별하게 보내는 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2025년 땡스기빙은 11월 27일 목요일이다. 하지만 보스톤 인근에서는 그보다 일주일 앞선 11월 22일부터 진정한 축제가 시작된다. 미국 역사의 발원지 플리머스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퍼레이드와 보스톤 도심에서 열리는 홀리데이 쇼핑 마켓은 올해 땡스기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두 가지 필수 이벤트다.

400년 전 필그림들이 첫 발을 디딘 그 역사적인 땅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 그리고 뉴잉글랜드 지역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마켓까지.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 두 이벤트를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한다.

역사 속 주인공들이 거리로 나온다면?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이 이벤트가 1996년부터 시작된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고향 땡스기빙 퍼레이드(America's Hometown Thanksgiving Parade)"다.

**미국의 고향 땡스기빙 퍼레이드 (America's Hometown Thanksgiving Parade)**

플리머스에서 열리는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미국 역사를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타임머신이다. 이 행사는 매년 10만 명이 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미국 최고의 땡스기빙 퍼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플리머스 록에서 출발해 플리머스역 사 지구 워터프론트를 따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WCVB 채널 5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퍼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역사를 연대기순으로 재현한다는 점이다. 17세기 필그림 시대부터 시작해 독립혁명, 남북전쟁, 세계대전을 거쳐 21세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화려한 플로트와 재연 배우들이 등장한다. 필그림 의상을 입은 배우들,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의 공연자들, 독립전쟁 군복을 입은 행진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메



이플리워호를 재현한 플로트와 전국에서 모인 마칭밴드의 우렁찬 연주가 더해져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퍼레이드 당일 오전 9시부터 개막식이 시작되므로,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플리머스는 보스톤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에 있다. 퍼레이드 후에는 플리머스 패터닉 박물관을 방문해 실제 필그림과 외판과 노아그족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 오전 10시 (개막식 오전 9시)

날짜: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앵콜 방송: 11월 27일 오전 9시)

주소: Plymouth Rock, 79 Water St Plymouth, MA 02360

웹사이트: <https://usathanksgiving.com/>

**보스톤 퍼블릭 땡스기빙 쇼핑 마켓 (Boston Public Thanksgiving Shopping Market)**

보스톤 도심 한복판, 100 Hanover Street에

위치한 보스톤 퍼블릭 마켓은 땡스기빙 주간 에 특별한 쇼핑 마켓을 개최한다. 땡스기빙 쇼핑 마켓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 3일간만 운영되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중 운영되는 30개 이상의 정규 벤더들에 더해, 땡스기빙 시즌에는 특별히 선별된 소규모 비즈니스 팝업 벤더들이 합류한다. 뉴잉글랜드에서 직접 생산된 수제 상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이들은 땡스기빙 테이블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선한 농산물, 생선, 육류, 유제품, 베이킹 믹스 등 현지 식재료는 물론, 흠웨어, 장인 초콜릿, 현지 맥주와 와인 등 호스트 선물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땡스기빙 쇼핑 마켓의 진정한 매력은 한 지붕 아래에서 선물과 식재료를 동시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특한 수제 선물은 물론, 땡스기빙 디너를 위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실내 마켓이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스톤의 추운 가을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다. 참고로 보스톤 퍼블릭 마켓은 땡스기빙 이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홀리데이 쇼핑 마켓도 별도로 운영한다.

시간: 오전 11시 - 오후 6시

날짜: 2025년 11월 21일 - 11월 23일 (목-토)

주소: 100 Hanover Street, Boston, MA

웹사이트: <https://www.bostonpublicmarket.org/>

플리머스의 대규모 퍼레이드와 보스톤 퍼블릭 마켓의 따뜻한 쇼핑 경험. 이 두 이벤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한다. 올해 땡스기빙은 단순히 칠면조 저녁을 먹는 것을 넘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국의 역사를 체험하며 지역 사회를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 특별한 이벤트를 방문해보자.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핸디맨 앤디**

HANN 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톤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857.600.6755** **US 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인생의 세 갈래길

"언제나 한 번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네버게이션도 없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길을 잃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 \_김용태 교수의 글 중에서.

그렇다, 우리는 어제를 살았지만,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존재다. 그저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하며 맞고 보내고 또 오늘과 다른 어제를 만들며 산다. 단 한 번도 미래는 살아본 일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불안한 존재인 까닭이다. 현대인들은 바쁘지 않은가. 그 빠른 걸음으로 어느 목적지를 향

해 견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일까.

"우리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기대하는 생활을 그리며 산다. 문제는 자신의 현실과 그 간극이 커지면 생기게 되는데, 자신의 현실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는 게 괴로워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주어진 현재를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과거에 빠져 사는가 하면, 허황된 미래에 빠져 살기도 한다. 몸은 현실에 존재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방향하며 정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이들 역시도 살아온 세상의 경험만큼이나 보람과 영광의 산 정상 높이보다 찢기고 얽힌 상처의 아픈 골이 깊디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이 우리네 삶이란 생각이다. 유한적인 삶과 인생의 우리 모두에게 똑같

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산을 올라본 이들은 알 것이다. 산을 오르는 안내표지판이 트레일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산속에서는 깜빡할 사이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령 같은 산 같은 트레일을 여러 번 올랐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교만이다.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의 삶에 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인생의 모든 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현재가 어제의 현재였으며 내일의 현재인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인가 점검해봐야 한다. 사뭇 물을 가서 가고 싶은 장소를 찾으려면 내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갈 방향을 정하고 찾는 곳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내 현 위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담는다. 겉모습의 내 모습뿐만이 아닌, 내 내면의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확인해봐야 하는 까닭이다. 나의 건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발을 얼마만큼 앞으로 내디딜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알지 않겠는가. 무작정 마음만 앞서다간 낭패가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현재에서 과거의 길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너무도 허황된 부푼 꿈으로 현재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늘 확인해봐야 한다. 삶뿐만이 아닌 신앙생활(믿음생활)도 마찬가지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 확실한 목적지가 지금 나의 현 위치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시 제대로 된 목적지 방향으로 놓아야 한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점검하는 오늘이면 좋겠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숨기고 싶은 이야기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오래전 한국신문에 연재되던 컬럼제목이다. 저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기록했고, 후학들에게 남기는 자신들의 행적이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중엔 필자들의 어두운 과거사나 실패한 일들은 많지 않다. 다만 성공담이 우선이었던 바. 그분들이라고 어두운 흑역사가 없을수는 없을텐데 말이다. 내겐 남기고 싶은 것보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다.

아내와 의논해야만 하는 게 있다. 아내만이 해답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털어 놓아야 하는 과거사도 있다.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없는 일이고, 아이에게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듣는 아내나 친구들도 밝고 즐거운 이야기

가 어두운 흑역사보다는 즐거울 거라 믿는다.

한국의 흘러간 옛가요 제목이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애심이 불렀다. 내 어머니도 마루를 걸레질하시면서 콧노래로 흥얼거리시곤 했던 노래다. 가사야 그저 그렇다만, 곡을 붙이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갈 없는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아그래도 잊지 못할 그림던 내 사랑아 한참고 설움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구도 묻지 않을 것이다. 설사 묻는다면 대답은 커녕, 머뭇거

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예 입을 다물든지 우물쭈물 화제를 돌리는 거다. 가슴속에 묻어 두는데, 지고 가야 할 나만의 어두운 흑역사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나라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없을리는 없다. 보스톤코리아 한담객설을 통해 몇자 남기는 걸로 대신한다. 오늘 졸문은 제목대로 어두운 흑기록이 되었다. 과거를 묻지 마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7)

오늘은 차마 숨기고 싶은 이야기와 부끄러운 과거일을 고백해야 할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말이다.

한국국회 장관후보자 청문회 광경이다. 몇해전 유튜브에서 봤는데,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왔다. 후보자 입장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을터. 어두운 과거사 중 한 토막이었을 테니 말이다. 흑흑역사. 요즈음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란다. 재치가 넘치는데, 내귀에 콕박혔다. 깊은 생각없이도 쉽게 뜻이 유추되었기 때문이다. 흑역사라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라는 뜻일게다. 숨기고 싶은 과거사事라 해야 할까.

JUNG KWAN JANG

12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기회

#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건강을

11월 07일 ~ 11월 30일 (24일 간)

## 행사 1

### 홍삼정 / 에브리타임

- 홍삼정 240g (1개 이상) 구매 시, 천녹정 30g 증정
  - 홍삼정 120g (2개 이상), 홍삼정 리미티드 (2개 이상) 구매 시, 천녹정 30g 증정
  - 에브리타임 30포 구매 시, 10포 무료 증정(멤버스 고객 ONLY)
- \* 정240g, 정 리미티드(3개입)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증정



\$44 상당

## 행사 2

### 뿌리삼 / 달임액 / 천녹류 (Mix & Match 가능)

- 1개 구매시 10%, 2개 구매시 15% 할인
- \* 보자기 포장 + 감사카드 증정 | \* 천삼달임액 할인 제외



## 행사 3

### 톤류 및 기호류 (Mix & Match 가능)

- 1개 구매시 20%, 2개 구매시 30% 할인
- \* 대상 제품 (총8종): 홍삼톤 골드, 홍삼톤 청, 석류홍삼, 봉밀절편, 활기력, 콜라겐 샷, 글로우 부스터 (2종)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넘어질 때 무심코 짚은 손목이 골절, 다른 부위 골절 가능성 급증



손목 골절의 경험이 있다면 10년 이내 척추 및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50세 이상에서는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골밀도 검사가 필수이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홍 경호 상지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여성은 35세 이후부터 서서히 뼈가 약해지는데, 폐경 이후 5~10년 동안 뼈 손실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폐경이 되면 뼈를 흡수하는 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폐경 직후 골다공증 위험은 크게 증가하며 척추 압박골절과 손목, 고관절 골절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발생한다.

나이가 들면 균형감각이 저하되고, 근력도 감소하며 쉽게 넘어지기 쉽다. 낙상은 단순히 외상이 아니라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에서는 낙상 시 반사적

으로 손을 뻗어 땅을 짚다가 손목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 환자가 한번 골절을 겪으면 이후 다른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5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반대편 고관절이나 손목, 척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골다공증은 뼈 자체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골절되면 그 외 부위도 쉽게 손상된다.

경미한 손목 골절은 향후 척추나 고관절 등 큰 골절의 예고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손목 골절은 대개 적은 충격으로도 잘 발생하는데 이는 뼈가 약해져 있다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손목 골절 환자는 실제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이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손목 골절을 겪은 여성은 이후 척추골절이나 고관절골절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손목 골절이 첫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 후 10년 이내 척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홍경호 상지센터장은 "손목 골절은 국소적 외상보다는 전신적인 골밀도 저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50세 이상에서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반드시 골밀도 검사 및 골다공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손목 골절은 척추나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예측 인자이며, 이를 단순 골절로 넘기지 않고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경호 상지센터장은 "40세 이전 조기 폐경, 부모의 고관절 골절, 저체중, 과음 등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 폐경기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선, 문턱 등 집안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강

화해 신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수면제 등 약물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복용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넘어질 때 무심코 짚은 손목이 골절, 다른 부위 골절 가능성 '급증'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 Meet Me at

# the MFA ▶ Fall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 Exhibition

## Of Light and Air: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Through 1/19



### Program

## Boston Family Days

- ▶ Sunday 11/9
- ▶ Free for Boston students and their families

### Special Event

## \$5 Third Thursday

- ▶ Thursday 11/20
- ▶ \$5 admission after 5 pm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